

# 광양, 1000만 관광객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 ‘3최 원칙’ 관광인프라·콘텐츠 확충... 뉴노멀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광산업을 민선 8기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2023년을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원년으로 삼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급변하는 新 관광 트렌드와 민선 8기 관광정책을 반영한 뉴노멀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최대·최다 3최를 원칙으로 랜드마크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양매화축제 업그레이드,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수요자 중심 시티투어, 광양음식 브랜드 등 오감 만족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고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부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관광 등

미래지향 관광정책,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대체 구축,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관광진흥위원회, 축제위원회, 관광협회 등 전문가와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과 기업,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간다.

최고·최대·최다 3최 원칙을 목표로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생태권역을 확충한다.

또 광양의 대표축제인 광양매화축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개발, 광양시티투어 활성화 등 오감을 만족하는 킬러콘텐츠

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한다. 민선 8기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이라는 시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하는 뉴노멀 로드맵을 설정한다.

개별 관광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따라 메타버스, 스마트관광지도 등 관광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여행지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투어를 활성화한다.

시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펼쳐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구상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 슬로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과 시정

비전인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바탕으로 최고·최대·최다 3최 원칙에 따라 글로벌 명품관광도시를 반드시 실현하며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로 침체했던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차별화된 킬러콘텐츠와 전방위적 관광수용대체로 4년 만에 열릴 광양매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급변하는 관광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례, 하동, 곡성 등 섬진강을 공유한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히 연계 협력해 관광권역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통의 장을 끊임없이 창출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광=조순익 기자

## 한갑수 전 장관, 고향사랑기부금 ‘나주 1호’ 500만원 쾌척·답례품도 기부... “나를 키워준 고향”

고향사랑기부금 ‘나주시 1호 기부자’로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갑수 전 장관(90세)이 지난 6일 서울 거주지 농협지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나주시에 기탁했다.

한 전 장관은 나주시 반남면 출신으로 1958년 고시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후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당시 제51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앞서 1978년에는 나주·광산 지역구에 출마해 제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공직을 떠난 후에는 동신대학교 교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을 맡고 있다.

한갑수 전 장관은 “나를 키워준 곳이 고향 나주이고 나주가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상 그리운 고향에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쁘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참 좋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돼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한 전 장관은 기부 후 제공되는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기부해 감동을 선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 전 장관님의 고귀한 마음과 애郷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나주를 사랑하는 향우와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부금을 고향 발전에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철훈 기자

## 순천시 대학협력팀 신설 관내 대학과 상생협력 강화

순천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에 대학협력팀을 신설했다.

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방식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신설된 대학협력팀은 지역-대학 상생협력 방안 수립,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대학연계 관련 사업 발굴 및 협력 지원 활동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1월 9주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관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인제 양성 및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식학(지자체·산업계·대학)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학협력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은숙 평생교육과장은 “지역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빛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순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영광 안심식당 신규 모집

영광군은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외식문화 문화를 확산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탈이머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및 방역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문화 개선 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영광군이 현재 지정된 안심식당은 87곳이며,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5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심식당 지정 신청은 위 지정요건 3가지를 실천하는 음식점이면 가능하다.

안심식당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위생팀 ☎061-350-5564)으로 신청하면 되며, 현지 확인 점검을 거쳐 안심식당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향후 음식점화 개선과 관련된 위생용품 지원, 영광군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지정요건 3가지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은 지정이 취소된다.

김중만 영광군수는 “안심식당 지정제도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식사문화의 개선 등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준민 기자

## 무안 겨울 송어 축제 “황금송어를 잡아라! 1등 골드바”

### 14·15일 해제면주민다목적센터·양간다리수산시장 일원서

무안군은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송어를 주제로 한 축제인 ‘황금송어를 잡아라! 1등 골드바’를 14일과 15일 양일간 해제면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수산시장 일원에서 펼쳐질 ‘2023년 무안 겨울 송어 축제’ 준비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2023년 새해 첫 축제이자 해제면 소재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먹거리 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킬러 콘텐츠로 ‘황금송어를 잡아라!’, ‘원데이 클래스 송어초밥 만들기’, ‘무안 농수산물 구이’, ‘농수특산물 깜짝 경매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및 판매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금송어를 잡아라!’는 플레이 송어를 잡는 체험으로 제한된 시간에

가장 큰 송어(무게)를 잡는 1등 체험객에게 황금바를 증정한다. 체험비는 10,000원이며 참가대상은 13세이하 어린이이다. 1일 4회 총 8회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11시30분, 오후 1시, 3시 30분이다. 사전신청은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1일부터 진행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초당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서 운영하는 ‘원데이 수업’에서는 클래스가 다른 송어초밥을 만든다. 운영은 1일 2회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이며 체험비는 5,000원이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겨울철 행사장을 찾아준 관광객의 몸과 맘을 따뜻하게 녹이며

무안의 농수특산물을 200% 맛있게 맛볼 수 있도록 구이터&섭터를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여 황토구리마, 수산물세트(굴, 가리비, 꼬막), 송어 등을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하고 송어를 활용한 그라브라스 샐러드, 송어 튀김우동, 칠리송어탕수와 석화감태전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사기간 중 무안군 관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황금송어잡기 체험료가 반값으로 할인되는 지역상생 가자 이벤트를 양간다리수산시장에서 1만5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챙겨온 경우 팽넛, 돌림판을 이용하여 담요, 쌀, 고구마, 예코백을 선물로 증정하는 먹고 받는 대박 이벤트도 마련했다.

/무안=박대연 기자

## 완도장보고장학회, 올해 장학사업 32억 원 투입

###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 19개 사업 운영



완도 (재)장보고장학회가 올해 장학회 예산으로 총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을 9일 밝혔다. 올해 장학회 예산은 19개 장학사업에 26억 원과 적립금 4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했다.

장학 사업은 인제 육성 장학금, 미래 교육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보편적 교육 사업 등 4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장학회에서 선정하고 지급하는 인재 육성 장학금을 제외한 3개 분야는 완도교육지원청과 관내 소재 학교로

부터 장학 사업을 신청받아 이사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되었다.

(재)장보고장학회에서는 2007년 설립 이래 장학 기금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군민과 향우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현재 180억 원 을 조성했다.

특히 인구 감소, 양극화, 입시제도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재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복지를 추구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2022년도 장학 사업은 20개 사업에 22억 6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748명의 학생에게 5억 8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 장성, 참전유공자·보훈수당 2배 인상

### 김한중 군수 “국가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 명예 높여준다”

장성군이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금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궁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부

지센터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에 유망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 원을 확보했다.

김한중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 장흥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군청 실과소·행정복지센터 배치 행정사무·현장업무

장흥군이 지역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겨울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재학생, 예비 대학생,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군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7년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해오며 대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심어주고 있다.

장흥군은 사업 첫날인 9일 군민회

관에서 사전설명회를 열고 근무내역과 근무 중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올해 선발된 학생들은 총 20일 동안 군청 실과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행정사무 및 현장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김성 장흥 군수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갈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알고 자립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광양,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대상자 모집

광양시가 2023년부터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만 44세 이하 여성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결혼연령의 상승, 환경호르몬 증가 등 생식기능이 저하돼 난임 진단자가 증가하는 현재, 한방 지원을 통해 임신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한방 난임치료 후 추적조사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축소했으며, 이는 여성의 몸 상태가 임신 성공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지금까지 추적조사 기간이 길어 한방 난임치료를 받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자들까지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라남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이 안되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라면 부부 모두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상반기 모집 모집기간은 올해 2월 17일까지로, 한방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지참해 중대통합보건지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추가)이며, 남성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실시한 정액검사 결과지 포함이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포스터나 리플릿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영광=조순익 기자

## ‘설 선물’ 해남미소에서 구입하세요

### 오는 24일까지 농수특산물 최대 40% 특별 할인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할인 행사와 함께 고품질 이벤트를 제공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해남농수특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고품도 수여진다.

기간동안 전체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청정 쌀과 잡곡세트 14종,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 6종, 김, 생선, 전복 등 수산물 15종, 김치, 장류, 한과 등 전통식품 12종, 웰빙과일세트 13종, 건강식품 11종 등 총 140여개 명절 선물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에만 판매되는 해

남미소 명품푸러미 선물세트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수산물로 꾸러미를 구성해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해남미소 히트상품으로 매년 조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선물세트는 1호부터 4호까지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3만 5,000원에서 10만원까지이다.

해남미소에서는 구매 고객을 위한 푸짐한 고품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기간 해남미소를 통해 구입한 고객 중 구매액 50명을 선발해 3만 원에서 20만원권 상당의 해남미소 상품권(포인트), 행운왕 30명에게는 해남고구마 5kg을 증정한다.

/해남=김동주 기자

##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강진군이 우울증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을 위해 읍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함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강진군민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방문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후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우울증 선별검사도 계획중에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을건강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건강 주치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층평가 및 상담, 우울감, 등에 관한 정신건강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강진=한홍주 기자